

3. 10재앙을 내린 분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인가?

1. 출애굽

1. 출애굽 사건의 중요성

출애굽 사건은 구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적 행동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 사건에서 하나님은 ‘해방자’임을 경험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억압과 착취로 고난당할 때 그들의 외침을 들으셨으며, 억센 손으로 원수를 격퇴하시고, 온갖 기적을 통해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켰다고 고백한다(신 26:5-9).

“⁵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십시오.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몸 붙여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⁶그러자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강제노동을 시켰습니다. ⁷그래서 우리가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살려 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역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⁸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후손들이 반복함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자로 신앙되었다. 말하자면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으로 성장한다. 즉 출애굽은 이스라엘 역사의 기원이며, 종교의 바탕이다. 이처럼 이스라엘 종교와 역사는 추상적인 교훈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역사, 즉 출애굽의 해방 사건에 기초하고 있다.

2. 모세와 출애굽(출 1:1-15:21)

1. 출애굽 사건의 개요

죽장 야곱의 가족이 흉년을 피해 이집트로 이주하여, 곡창지대인 나일강 삼각주 부근의 고센 지방에 살게 된다. 그의 아들 요셉의 고위관직 때문에 환대를 받았지만 요셉이 죽자 상황이 바뀌어 노예로 전락한다(출 1:8-14). 이러한 역사에 등장한 인물이 모세였다. 모세는 히브리인의 정치와 종교지도자였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다. 그래서 히브리인을 해방하기 위해 바로에게 간다. 그러나 이집트인의 억압은 더 심해졌다. 그러나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써 바로의 고집을 꺾었고,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다.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물, 메추라기, 만나를 주셔서 갈증과 굶주림을 채워주셨다. 그러나 히브리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했다.



① 출애굽 시 그들과 같은 하층민의 처지에 있던 민족들도 따라나섰다(12:38).

② 홍해를 건넜다(출 13:18).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여기서 홍해는 히브리어로 ‘암쭈프’이다.

‘암쭈프’의 번역 이 말을 ‘갈대바다’ 혹은 ‘파피루스호수’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히브리어로 ‘얌(yam)’은 “바다”(예, 지중해) 또는 내륙호수(예, 갈릴리 바다)를 의미하며, ‘쭈프’(suph)은 “갈대” “파피루스” 즉 호수 주위에서 자라는 갈대를 의미한다. 아마도 이곳은 수에즈만 북쪽 끝에 자리 잡은 늪지대의 호수를 가리키는 것 같지만, 정확한 지점을 알 수 없다.

2.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출 1-11장)

이 부분은 노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구출해 내는 ‘하나님의 큰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열 개의 재앙 이야기가 들어있다.

1. 재앙과 의미

1. 재앙의 의미

재앙	성경	의미
피	7:20	① 물이란 창조와 관련 있다. 하나님은 물의 세력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시다. ② 물이란 생명력의 근원이다. 이는 이집트 사람들의 존재 기반을 흔드는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개구리	8: 6	이집트의 신인 개구리를 맘대로 조정할 수 있는 참 신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다른 신들보다 탁월하다.
이=모기	8:16	모기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이다.
파리	8:24	파리떼=하트콕 신: 하나님이 이집트 신보다 더 위대하다.
악질	9: 3	가축에게 발생했던 전염병이다.
독종	9:10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다(신 28:35).
우박	9:23	이집트에서는 큰 기상이변으로 곡식, 동물,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
메뚜기	10:22	농작물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 도구이다.
흑암	10:22	창조 이전의 어둠. 3-5월경 리비아사막에서 모래바람이 불면 태양을 차단하여 앞을 분간할 수 없다.

2. 재앙 이야기의 문학표현

	재 앙	성 경	경고	경고 시간 / 장소	지시 형태	바로에게 전한 말	신 하
I	A 1. 피	7:14-24	○	아침/강가	바로앞에 서라	내 백성을 보내라	술객이 따라 함
	B 2. 개구리	7:25-8:11	○	×	바로에게 가라	내 백성을 보내라	-
	C 3. 야=모기	8:12-15	×	×	×	×	못함: “하나님의 권능”
II	A 4. 파=이	8:16-28	○	아침/강가	바로앞에 서라	내 백성을 보내라	지역 구별함
	B 5. 악질	9:1-7	○	×	바로에게 가라	내 백성을 보내라	
	C 6. 독종	9:8-12	×	×	×	×	술객도 걸림
III	A 7. 우박	9:15-35	○	아침/강가	바로앞에 서라	내 백성을 보내라	종가축파산시키는 자
	B 8. 메뚜기	10:1-20	○	×	바로에게 가라	내 백성을 보내라	재앙 전에 놓아 주자
	C 9. 흑암	10:21-23	×	×	×	×	
IV	10.장자죽음	11:4-7 12:29-30	○	×	×	×	히브리인에게 물건 줌

3. 히브리인의 하나님 야훼와 바로의 충돌(5-6장)

미디안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모세는 그 지시에 따라 이집트로 간다. 그러나 바로는 참신이신 여호와를 모른다(5:2). 그래서 충돌한다. ❶ 인간이 만든 종교와 약자를 억압하는 지배계급(바로)과 충돌한다. ❷ 참 신이신 여호와는 ‘억압받는 소외계층인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말에 대해 지배자 바로는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그 이유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곧 ‘피지배자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바로의 억압은 더욱 거세졌다. ① 벽돌 제조와 건축 노동의 과중한 강제 노역을 부과, ② 산파를 이용하여 모든 히브리인 사내아이의 출생을 막으려 한다. ③ 영아학살로 ‘이스라엘의 번성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활동’을 방해하려 함.

4.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함

재앙	성경	이집트의 신을 심판
피 (나일강)	7: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일강을 담당하는 신들을 공격한다. 하피(Hapi) / 아피스(Apis) : 나일강을 수호하는 황소신(다산의 신) 이시스(Isis): 나일강을 담당하는 다른 다산의 여신 크논: 나일강을 수호하는 염소신
개구리	8: 6	헤케트(Heget) : 다산을 상징하는 개구리 형상을 한 부활의 신
이	8:16	셋(Set): 땅과 사막의 신
파리	8:24	태양신 레(Re) 혹은 파리로 대표되는 신 우아트킷(Uatchit)
악질 (가축죽음)	9: 3	하토르(Hathor) : 암소 모양의 어머니 여신으로 다산을 상징 아피스(Apis): 황소 신으로 풍요를 상징 므네비스(Mnevis): 다산의 상징인 황소 신
독종 (악성종기)	9:10	임호텝(Imhotep) : 의술의 신 세크메트(Sekhmet): 질병을 관장하고 아우르는 신 이시스(Isis): 암소임에도 머리에 뿔을 가지고 있는 치료의 신
우박	9:23	슈(Shu): 공기의 신 테프누트(Tefnut): 습기의 신 누트(Nut) : 하늘의 여신으로서 오시리스의 어머니 오리시스(Osiris): 곡물과 풍산의 신
메뚜기	10:22	겐(Geb), 셋(Seth) : 곡물의 수호신 오리시스(Osiris): 곡물과 풍산의 신
흑암	10:22	라(Ra), 레(Re) : 이집트 최고의 신인 태양의 신, 세게트(Sekhmet) : 태양의 여신 하늘의 신들: 호루스(Horus), 세커(Seker), 케프리(Khepri), 무트(Mut), 누트(Nut)
장자죽음	12:29	오시리스(Osiris) : 다산(多産)의 신 이시스(Isis) : 생명을 주관하는 신, 어린이 수호신 민(mIn): 재생산과 출산의 신, 헤케트(hekget): 출산하는 여인들을 돌보고 관장하는 신(4월) 바로(일종의 신).

4. 9가지 재앙 이야기의 의미

1. 이야기의 역할

① 이것은 출애굽의 해방을 가져온 요인이 아니다. ② 이 이야기는 ‘바로의 고집’을 주제로 반복하는 이야기이다. 즉 재앙이 9차례나 계속되지만, 이스라엘의 출애굽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바로의 마음만 더욱더 완고해져 갔다는 사실만 되풀이하고 있다.

2. 바로의 완고한 대응

재 앙	완악	‘보내지 않겠다’	‘Y께서 말씀하신대로였다’	바로가 한 말
1 피	B		○	
2 개구리	B		○	이 백성을 보내니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
3 야모기	B		○	
4 파리	B	○		너무 많은 가지 말라. 나를 위해 기도하라
5 악질 ^{가축 死}	B	○		
6 악성종기	Y		○	
7 우박	B	○	○	이번은 내가 범하였다. Y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8 매뚜기	Y	○	△	남자만 가. Y와 너희에게 득죄. 이번만 용서하고 죽음만 떠나게하라
9 흑암	Y	○	△	가축은 남겨두고 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말라 보는 날엔 죽으라
10 장자죽음				모두 가라.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3. 바로의 완악한 마음은 누구의 책임인가?

1) 9가지 재앙 이야기는 출애굽보다는 ‘바로의 완고한 마음’이 **중심주제**이다.

이적을 보고서도 이스라엘을 내보지 않는 것은 바로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는 것이다. 즉 이스라엘을 그 억압자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자신의 이름**”(15:3)을 온 땅에 널리 알리려는 그 계획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면서까지 큰 재앙들을 내린 것이라고 한다. (김이곤)

- 하나님은 인간을 완악하도록 교화하는 간교한 성격을 가졌는가? 절대 아니다.

2) 바로의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도구이다(10:1-2).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여호와의 뜻은, 외국에서 이적을 증대시켜 여호와의 역사 주권을 외국인으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4. 9가지 재앙 이야기의 주제

재앙 이야기는 역사의 주권을 놓고 하나님과 바로, 즉 하나님과 이집트 태양신 사이에 벌어진 대결을 그 중심 주제로 삼고 있다.

① 성서 기록자의 근본 의도는 바로와 이집트 인,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는 데 있었다(7:17, 8:6,18, 9:29, 10:2).

② 이집트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조차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수중에서 움직일 뿐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을 뿐임을 강조한다.

③ 바로의 완고함과 그로 인한 재앙 이야기의 중심 의도는, 여호와만이 오직 한 분의 신이시요, 역사의 유일한 주인이시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려는데 있다.

3. 신앙의 시각

1. 재앙은 자연현상이다.

재 앙		바 로	창조주능력
1	피	나일강 대량 번식한 붉은 색의 조류, 나일강 범람으로 황토/적색토사	애굽신과 그들의 삶의 근원에 대한 재앙
2	개구리		
3	이=모기		
4	파리	나일강의 홍수가 물러가면서 남겨진 부패한 식물에서 생겨남	동물
5	악질	죽은 개구리들로부터 전파된 탄저병	
6	독종	무는 파리에 의해서 전파된 피부 탄저	
7	우박	이상 기후 현상	식물
8	메뚜기	이상기후가 메뚜기의 재앙을 촉진	식물
9	흑암	사막의 모래폭풍으로 태양빛을 차단	창조이전

9가지 재앙은 이집트의 자연현상에 상당히 잘 들어맞는다. 이 해석에 따르면 재앙들은 보기 드물게 심한 자연현상들이 '원인-결과'로 성서 본문의 순서대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된다(우박재앙은 제외하고).

재앙은 홍수로 나일강이 범람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붉은 토양과 편모충인 붉은 빛의 미생물들이 씻겨 내려오며, 이에 따라 나일강은 붉고 탁하게 변해 고기가 죽을 수 있다(1재앙). 죽은 고기 떼는 개구리가 강을 떠나게 할 수도 있으며(2재앙), 또한 그 개구리들이 병원균에 감염될 수 있어서 개구리들이 갑작스럽게 죽었을 수도 있다. 모기(3재앙)와 파리(4재앙)는 나일강의 홍수가 물러가고 난 뒤 고인 물웅덩이 속에서 자유롭게 부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가축들의 죽음(5재앙)은 탄저열 때문이며, 오염된 죽은 개구리들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사람과 가축에 난 독종(6재앙)은 피부 탄저병으로서, 주로 넷째 재앙의 파리 떼에 물렸을 때에 전염되었다. (이상 기후 현상이거나 아니면) 처음의 범람을 일으킨 홍수를 야기한 비로 인한 우박과 뇌우(7재앙)는 삼과 보리를 망쳐놓았고, 그것은 메뚜기 떼를 몰고 와서 밀과 나뭇을 망쳐놓았다(8재앙). 마지막으로 짙은 어두움(9재앙)은 2월말에서 3월초에 남쪽에서 이집트를 강타하는 '컴신'으로 알려진 사막의 모래폭풍으로써 2-3일 정도 계속된다고 한다. 모래폭풍은 첫 번째 재앙에서의 붉은 색의 미세한 먼지들을 대기 중으로 유입시켜 태양빛을 차단하였다는 것이다.

2. 자연현상 속에서의 기적

그러나 해석이야 어떤 것을 취하든지 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모기, 파리, 우박, 메뚜기 떼의 경우는 보통과는 달리 매우 심했다는 사실에 있다. 이러한 것은 자연현상 속에서의 기적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연현상들을 사용하신다. 그러나 10재앙은 그렇게 설명하지 못한다. 고대 이집트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자연재해 현상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 역사에 개입하신 것을 반영하고 있다. 즉 그런 자연현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활동이 나타났다고 믿었다. ⇒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성서)이 재앙을 바라보았던 시각이다.

3. 오늘 문제 해결

1.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적인 사랑인가?

- “그러므로 나는 손수 온갖 이적으로 이집트를 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출 3:20/새).
- “왜 여러분은 이집트 백성과 이집트의 왕 바로처럼 고집을 부리려고 합니까?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가게 한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온갖 재앙을 내리신 뒤가 아니었습니까?”(삼상 6:6/새).
-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애3:22/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어색하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다함이 없으며, 그 긍휼은 끝이 없으시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측량할 수 없

을 만큼 크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열 가지 재앙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나요? 실로 이집트를 초토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머쓱해질 정도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은 아무 상관도 하지 않으시는 피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이신걸까? 이스라엘 백성만 살릴 수 있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다른 것들은 죽이시는 하나님이실까? 오늘은 사랑의 하나님이 왜 열 번이나 재앙을 내리셔야 했는가?

2. 인간의 오만을 꺾는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

태양의 아들로 신격화된 바로가 보는 앞에서 바로 그 바로의 성역인 이집트 땅을 뒤흔들었던 재앙들은 출애굽 구원의 주제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다. 이 재앙들은 출애굽 사건을 더욱 확실하고 더욱 돋보이게 하는 사건으로 입증하는 역할을 한다.

이 재앙 이야기는 어느 누구도, 어떤 국가도, 어떤 민족도 구원해 줄 수 없는 대제국 통치 아래서 430년 동안을 노예살이로 신음하고 있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히브리(떠돌이)의 하나님 여호와가 저 재앙 사건들을 통하여 압도적인 권능과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개입해 들어 왔다는 것을 증언하는 일이었다. 약자들의 입장에서 이 얼마나 통쾌하고 기쁜 일인가? 1945년 히로시마에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일본이 패망했을 때 모두가 기뻐하지 않았던가! 일본 사람만 억울하지 일본으로부터 억압을 받았던 나라들은 자국의 국기를 들고 만세를 외치며 흥분하지 않았던가!

이 재앙 이야기가 말하려는 것은 그러므로 “**유일무이한 신의 이적**”을 증언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유일한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개구리 재앙과 이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이집트의 신들보다 우세하다는 것을 과시하는 신학적 증언이라고 할 수 있다.¹⁾ 더 자세한 것은 22쪽 ‘3. 재앙의 목적’을 보라.

3. 바로를 완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1.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역설적 증언

- 미디안에서 이집트로 떠나는 모세에게

1) 개구리 떼를 바로의 침상에까지 올라오게 하였다가 일시에 또 그 많은 개구리들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권능은 ‘개구리 시즌’에 귀를 따갑게 하는 소음을 통제할 길이 없어서 나일강에 개구리를 통제하는 악어를 키워왔다고 하는 이집트의 신 ‘헤크트’의 권능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왕권의 상징 또는 하나의 신으로까지 간주된 ‘딱정벌레’(나이트는 ‘파리’가 실제로는 ‘딱정벌레’였다고 봄)의 격되는 곧 이집트 제국의 오만을 꺾는 여호와와 일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이곤, 『출애굽기의 신학』 116.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 주지 아니하리니.”(4:21b).

- 이집트에서 바로와 이적을 통하여 대결하기 직전의 모세에게
 “³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4a}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7:3-4a).

위의 말씀으로 미루어볼 때, 우리는 이집트 땅에서 벌어질 모세와 바로의 대결은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였고, 그리고 바로가 상당한 이적을 보고서도 이스라엘을 내보지 않은 것도 역시 바로의 본성이 완악하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9가지 재앙들 중 5가지(1,2,3,6,7번째 재앙)가 모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라는 결론적 문구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태양의 아들로** 자처하는 이집트의 바로조차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장중(掌中)에서 움직일 뿐만 아니라 이집트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의 재해나 역사적 심판 사건도 또한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는 사상, 이른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역설적인 방식으로 강력히 증언하는 특징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있다.

2. 바로를 완악하게 하여 출애굽을 지연시킨 하나님의 의도

재앙 이야기에서 바로의 완고한 마음이 결코 재앙의 원인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였기 때문에 재앙이 이집트 땅에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계획, 즉 약하고 약한 히브리인들을 그 억압자로부터 해방시키심으로써 ‘자신의 이름’(출 15:3)을 온 땅에 널리 알리려는 그 계획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면서까지 이집트 땅에 큰 재앙들을 내린 것이다. 바로의 완악함을 알리는 본문 하나를 보자.

(가)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 주지 아니하리니.(출 4:21b).

(나)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1.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2.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3. [… 인도하여 낼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출 7:3-4).

위 7:3-5절의 세 개의 ()속에 나타나는 세 진술이 바로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의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

여 출애굽 해방을 지연시키시는 하나님의 근본 의도는 첫째(1), 이집트 땅에서 행할 표징과 이적을 ‘증대시키는 것’ (“**많이 행할 것**”)이다. 둘째(2), 억압자 바로와 그의 땅 이집트를 ‘**큰 심판으로**’ 침으로, 히브리인들의 해방을 단행하려는 것이며, 셋째(3),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이집트인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즉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외국 땅에서 이적을 증대시켜 여호와와 역사적 주권을 외국인으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려는 것이다.

* 그러므로 이 재앙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재앙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예컨대 ‘신의 폭력’의 의미 같은 것보다는 ‘자기 계시’를 통하여 완성해 가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간 해방사의 의미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9번째 재앙인 어둠 재앙**의 경우 우리는 ‘빛과 어둠’의 대비법을 통하여 ‘레’(Re)의 아들로 자처하는 바로가 태양의 기울음과 더불어 그도 역시 함께 기울게 됐다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이다.

* 그러므로 이 재앙 이야기로부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여호와 이미지’를 이끌어내는 의도란, 분명 기어이 “이집트 땅에서” 바로 위에 군림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한 역사적 주권을 선포하려는 데에 있었다.

3. 재앙의 목적

1) **하나님의 능력**: 이집트 땅에 비옥함과 풍요로움을 약속해 주는 주요 근원인 나일강이 이집트인들에 의해 늘 신으로 간주되어 온 이래, 그 재앙들은 곧 여호와가 모든 만유에 대한 지배권을 지닌 권능의 신이라는 것을 논증한다.

2) **비교 우위**: 여호와가 이집트의 그 어떤 신들보다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8:10) 큰 권능을 가진 신임을 이집트인들 스스로 알게 하여 “**야훼의 명성을 이 땅에 위에 두루 떨치도록**”(9:16b)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사건이라고 한다.

3) **여호와를 알게 함**: 비교 우위의 강한 인상을 받도록 하여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는 데 있다.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우주적 또는 역사적 유일한 주권에 대한 인식에 도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야훼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7:17, 8:10,22, 9:14,29, 10:2,7, 11:7).

4. 재앙의 신학(한동구 p144)

① 재앙을 불러들인 것은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다. ② 기적이거나 표적의 의도와 목적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다. 야훼는 세계적인 지배자 위에 계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③ 기적이거나 표적의 궁극적인 의도와 목적은 이스라엘의 미래의 목표를 이루는 데에 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신앙공동체의 형성에 있다.